

- **주요 뉴스:** 미국 부채한도 상향 여부, 백악관과 공화당의 갈등 등으로 불확실성 지속
 - ECB 슈나벨 이사,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0.50%p 인상도 가능
 - 독일 4월 Ifo 경기현황지수, 전월비 상승. 경제 성장 동력은 여전히 약한 편
 - 일본은행 총재, 강력한 인플레이션 발생해야 수익률곡선제어(YCC) 조정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향후 경제 전망 및 기업실적 예상 등이 영향
주가 상승[+0.1%], 달러화 약세[-0.5%], 금리 하락[-8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빅테크 실적 발표 앞두고 등락 거듭하다가 하락 마감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 위주로 혼조세 나타내며 약보합
 - **환율:** 달러화지수는 6월 이후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등이 반영
 유로화 가치는 0.6% 상승, 엔화는 0.1%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낙관적 경기전망 후퇴 등이 원인
 독일은 양호한 4월 Ifo 경기현황지수 및 ECB의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3bp 상승
- ※ 원/달러 1M NDF환율(1331.0원, -3.8원) 0.1% 하락, 한국 CDS 보합

		4/24일	4/21일	전일대비			4/24일	4/2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37.0	4,133.5	0.09%	국채 금리 10y	미국	3.49%	3.57%	-8bp
	유럽	468.97	469.00	-0.01%		독일	2.51%	2.48%	3bp
	중국	3,275.4	3,301.3	-0.78%		영국	3.78%	3.76%	2bp
	일본	28,594	28,564	0.10%		CDS 5y	한국	46bp	46bp
	한국	2,523.5	2,544.4	-0.82%	위험 지표	중국	73bp	73bp	0bp
	달러지수	101.35	101.82	-0.47%		EMBI+	-	422	-
환율	유로화	1.1046	1.0986	0.55%		VIX	16.89	16.77	0.72%
	엔화	134.24	134.16	-0.06%		WTI유	78.76	77.87	1.14%
	위안화	6.8958	6.8914	-0.06%	원자재	구리	395.4	398.0	-0.65%
	원화	1,334.8	1,328.2	-0.49%		금	1,989.1	1,983.1	0.31%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부채한도 상향 여부, 백악관과 공화당의 갈등 등으로 불확실성 지속

-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은 금주에 부채한도를 내년 3월말까지 1.5조달러 증액하는 조건으로 1300억달러 예산 삭감 법안을 제출할 계획. 이번 법안은 공화당에서 이미 지난 주 제안했으나 백악관은 강력하게 반대
-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는 양측의 갈등이 예상. 이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4월 정부세수 규모가 당초 전망보다 적어 7~9월로 추정되었던 채무불이행 현실화 시기도 6월 초로 빨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
- 최근에는 부채한도 상향 관련하여 투자자들이 미국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제기(JPMorgan). 실제로 4/24일 채권시장에서 부채한도 상향 관련 우려 등으로 1개월물 국채금리가 상승(3.41%, +15bp)
- 다만 일부에서는 부채한도 상향 문제는 오래 전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사안이라고 평가. 이에 세금과 정부지출 규모 관련 공화당과 백악관 및 민주당의 갈등도 결국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 피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Morgan Stanley, 미국은 성장둔화 예상되나 경기침체는 피할 전망

- Seth Capenter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한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경기둔화는 불가피하다고 분석. 그러나 아직까지 대규모 해고 사태, 혹은 심각한 신용위기로 인한 소비감소 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

■ EU와 일본,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 수출 금지 제안에 회의적

- EU 및 일본 관계자들은 G7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회의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 한편 미국 측은 계속해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 ECB 슈나벨 이사,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0.50%p 인상도 가능

- 다음 회의에서 0.50%p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 경제지표에 따라 금리인상 폭을 결정하는데, 최근에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하고 인플레이션 수준은 높다고 평가. 아일랜드 중앙은행 마cul로프 총재 역시 현 상황에서 통화긴축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언급
- 반면 프랑스 중앙은행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금리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진단. 아울러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추가 금리인상이 가능하지만 횡수 혹은 폭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 독일 4월 Ifo 경기현황지수, 전월비 상승. 경제 성장 동력은 여전히 약한 편

- 4월 Ifo 경기현황지수는 93.6을 기록하여 전월(93.2) 대비 상승. 이번 결과는 경기침체 우려가 다소 완화된 영향으로 추정. 금년 경기침체 회피가 가능하고 완만한 경기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 경제 성장 동력은 약할 것으로 예상(Helaba의 Ulrich Wortberg)
- 한편 독일 중앙은행은 독일이 연초 양호한 제조업 활동 등으로 1/4분기에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 및 공급 차질 완화 등이 계속해서 경제회복을 뒷받침했을 것으로 평가

■ 영국 4월 Rightmove 주택가격지수, 전월비 상승세 둔화.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 4월 Rightmove 주택가격지수는 월간 상승률이 0.2%를 기록하여 3월(0.8%) 대비 낮은 수준. 여타의 주요 선진국은 금리인상 중단 기대 등이 있으나 영국의 경우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

■ 일본은행 총재, 강력한 인플레이션 발생해야 수익률곡선제어(YCC) 조정

- 우에다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연율 2%)에 미치지 못해 현행 완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 일본은행은 1년 후 인플레이션도 전망하는데, 1년 후에도 매우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고 첨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2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2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달러화, 통화정책 전망 등을 고려 시 향후 약세 움직임 나타낼 전망 - 블룸버그

(Four Reasons Why Investors Expect US Dollar to Keep Sliding)

- 최근 달러화 약세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증가.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 첫째, 연준이 향후 1회의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으나 이후에는 결국 금리동결 및 인하의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 둘째, 최근 미국 은행권 불안 등으로 연준은 다른 통화당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신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관측
- 셋째, 일본은행 우에다 총리가 현행 수익률곡선제어(YCC)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향후에는 경기회복 등으로 이에 대한 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
- 넷째, 최근 중국이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으며, 이는 결국 위안화 강세 및 달러화 약세로 연결될 소지

■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 통화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지 - 블룸버그

(What a New Cold War Means for Central Banks)

- 중앙은행들은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통화긴축을 지속.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미-중 간 신냉전 시대 경제 블록화, 이에 따른 공급망 단절, 글로벌 노동력 감소와 같은 변화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 라가르드 ECB 총재 역시 세계경제 분절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화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지정학적 여건의 중요성 시사
- 대다수 중앙은행은 정책 독립성을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불필요. 오히려 정치적 여건이 통화정책이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는 자세가 요구

■ 미국의 은행권 불안, 연준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 등이 원인 - Financial Times

(Too much Fed liquidity has led to a whack-a-mole world of problems)

- SVB 파산 전 미국 은행산업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을 보유. 이는 파산문제가 유동성에 기인하지 않음을 의미. 오히려 연준의 대규모 양적완화에 따른 영향으로 예금이 큰 폭 증가
-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은 예금으로 유입된 자금으로 준비금을 늘리는 한편 국채 등의 자산 매입도 확대. 이는 국채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초래.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은 국채 등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은행권의 지급불능 문제 유발. 연준의 양적완화와 준비금 구조는 은행권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

■ SVB 사태, 사전 경고에도 적절한 대응이 미흡 - Financial Times

(Silicon Valley Bank: the multiple warnings that were missed)

- 역사상 최대 규모의뱅크런과 SVB 파산은 이전에 감지할 수 있었던 징후가 존재. SVB 사태 이전에 이미 신용평가사와 컨설팅기업 등의 지적이 있었지만, 은행 경영진은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
- 작년 10월 S&P는 SVB의 예금보험을 초과하는 예금에 주목하며 대규모 인출 위험을 경고. 작년 초 BlackRock 컨설팅 부문 역시 SVB의 포트폴리오 위험 통제 수준이 미약하다고 지적. 그러나 SVB는 이들의 해결 대안을 거절
- 연준 감독관들도 '21년말 은행의 관리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관련 충격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즉각적인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 하지만 은행 측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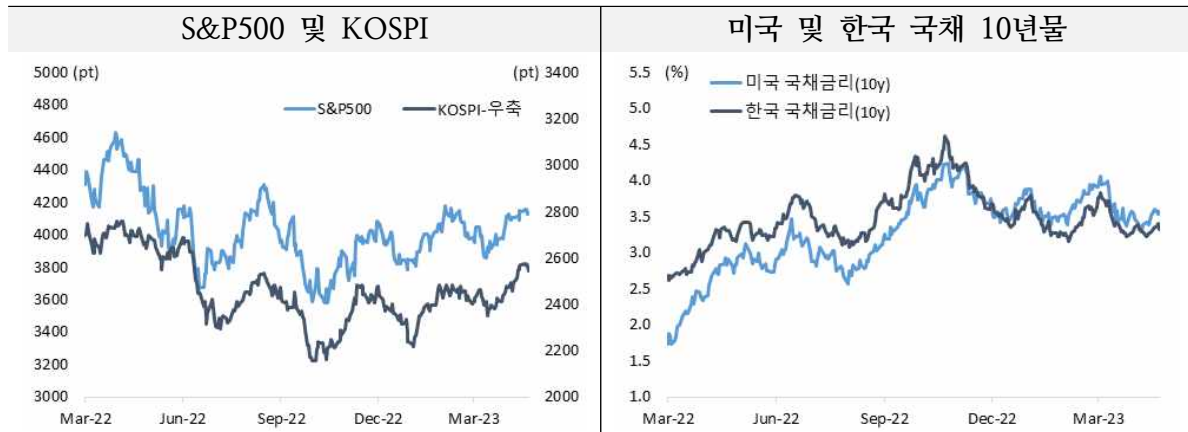
■ 미국 경제의 성장, 위험 감수 없이 경쟁력과 위상 유지는 곤란 - 블룸버그

(When Did Risk Become a Bad Word in the US?)

■ 미국 상업부동산,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부동산 수요 감소로 위험 증폭 - WSJ

(Commercial Real-Estate Woes Run Deeper Than in Past Downturn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